

#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 경기 좋는데 집값·환율은 불안

###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1.8%→2.0% 상향에 금리 인하 명분 없어

### 9개월간 금리 묶여... '인하 종료' 관측 굳어질 듯

### 금통위원 6개월 뒤 전망치 21개 중 16개 '동결'... 인하 4개·인상 1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린 만큼, 금통위로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뚜렷한 금리 인하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구나 대통령까지 연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에 전력하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낮춰 부동산과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길 이유도 없다.

금통위도 이날 위원 7명 전원 일치로 동결을 결정하면서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킷을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지난달과 이달 새해 두 차례 회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했다.

6연속 동결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최소 약 9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됐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하 없이 횡보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1.3%로 뛰었다. 이후 저지 효과와 건설경기 부진 탓에 4분기 역성장(-0.3%)했지만, 강한 수출 증가 기조와 소비 회복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

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국내 소비도 회복세"라며 "경기 회복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강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향후 경기에 하방 리스크(위험)보다 상방 요인이 더 큰 만큼 일단 동결 이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리를 낮추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불안 문제도 남아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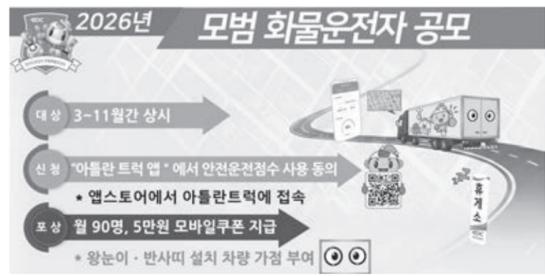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낮)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 증가는 1.4294원을 기록했고, 이날 장 중 1.410원대로 내렸다.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도는 등 1,500원 선을 위협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등과 함께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이승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 2026년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

### 모범 화물운전자 총 815명 선발, 9개월간 포상금 4,100만 원 지급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아틀란트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시되는 팝업창에 안전운전점수 사용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매일 '나의 안전운전 점수'(최소 주행거리

3,000km/월)를 기준으로 상위 90명씩 총 81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한다. 누적 우수자 5명에게는 10만 원 선불 하이패스 카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사장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화물차 야간 인성어 튀어오른 왕눈이·반사띠 설치 차량에 가점을 부여해, 야간 추돌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00km당 4.4회(과속 3.3회, 급가속 0.2회, 급감속 0.9회)로, 전체 참여자(61,405명) 평균 58.5회(과속 30.4회, 급가속 6.6회, 급감속 21.5회)의 약 75% 수준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 또한 '24년 대비 3.1회(24년 61.6회, '25년 58.5회) 감소하는 등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3개년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의 49.7%가 화물차 관련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UN과 AWC 잇는 전략적 가교 역할

### 아태 53개국 정부-27개국 181개 기관 연계, 정책-실행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의장기관으로 활동 중인 아시아물위원회(AWC)를 중심으로 유엔(UN) 산하 최대 규모의 지역 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물·기후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현지 시각 2월 25일, 태국 방콕 유엔 콘퍼런스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아태지역 물·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물 분야 다자 협의체와 체결한 최초의 전략

적 파트너십이다. 이에 따라 53개 회원국 정부가 참여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와 27개국 181개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아시아물위원회의 실행 중심 협력 체계가 연계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 수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물안보'를 공동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을 포괄하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

원회 설립을 주도한 이후 의장기관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선진 물관리 기술과 글로벌 의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공식 파트너 기구로 인증받는 등 유엔 내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물위원회는 활동 범위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전 회원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물 산업 기업들이 아태지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공식 협력 채널을 확보하게 되어 다년간 개발 협력 및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조용덕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아시아물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태지역 물안보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우리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 SK하이닉스·샌디스크, AI 추론 시대 겨냥 'HBF' 글로벌 표준화 착수

### OCP 협력 기반 HBF 표준화 착수... AI 추론 시대 겨냥 차세대 메모리 생태계 구축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Sandisk)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Milpitas)에 위치한 샌디스크 본사에서 'HBF 스펙(Spec.) 표준화 컨소시엄 킥오프(Kick-Off)' 행사를 열고, AI 추론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HBF(High Bandwidth Flash)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함께 HBF를 업계 표준으로 마련해 AI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OCP 산하에 핵심 과제 전담 워크숍을 샌디스크와 함께 구성해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산업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학습(Training)'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AI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메모리 구조만으로는 추론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HBF다.

HBF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과 대용량 저장장치인 SSD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이다.

HBM의 뛰어난 성능과 SSD의 대용량 특성 사이의 공백을 메우며, 추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용량 확장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확

성능보다 CPU·GPU·메모리·스토리지의 아우르는 시스템 레벨 최적화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로 인해 HBM과 HBF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 Chief Development Officer)은 "AI 인프라의 핵심은 단일 기술의 성능 경쟁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HBF 표준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시대 고객·파트너를 위한 최적화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안현 개발총괄 사장(CDO, Chief Development Officer)은 "AI 인프라의 핵심은 단일 기술의 성능 경쟁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HBF 표준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시대 고객·파트너를 위한 최적화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 우리銀, 우리WON뱅킹 앱에서 모든 금융사 대출금리 인하 신청한다

### 마이데이터로 조회부터 금리인하까지...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완화로 포용금융 실현

### 금리인하 가능 시점 자동 탐지...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앱에서 간편 처리"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이하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우리은행을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신청 기관으로 한 번만 등록하면,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우리WON뱅킹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가·신용도 개선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또한 기관마다 각각 신청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최초 1회 에이전트 등록 △금리인하 사유 선택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소득·거래정보 분석 △금



리인하 가능 시점 자동 탐지 △금융기관 대리 신청까지 앱 안에서 자동·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신청 이후 승인 여부를 우리WON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MyData플랫폼부 박진수 부장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여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가 제도를 알고도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마이데이터 기반 통합 신청을 통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승원 기자

# "김재철 동원그룹 창업자"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 542억 원 투입해 판교에 전용 연구동 건립, 역량 통합해 AI R&D 가속화

### 김재철 명예회장 "물리적 공간 넘어 국가 AI 산업 이끌 인재 위한 산실되길 바라"

동원그룹·한국투자금융지주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비롯된 'KAIST 김재철AI대학원' 판교 연구동이 26일 착공했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 판교 연구동은 KAIST(총장 이광형)가 총 예산 542억 원을 투입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건립하는 AI 대학원이다. 대지 6,000㎡에 연면적 1만 8,185㎡ 규모로 지어지는 'KAIST 김재철AI대학원'은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구성된 연구동에 AI 분야 융합연구실과 강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오는 2028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는 10MW(메가와트)급의 도심형 AI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 이

와 함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로보틱스밸리도 갖출 계획이다. 각 층에 마련

된 개방형 공간에서는 기상예측, 신약개발 등 과학 AI와 헬스케어 AI, 제조 AI 등 'KAIST 김재철AI대학원'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AI의 역사를 한 눈에 아우르는 AI 전시관과 갤러리, 시네마 공간을 기획해 신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감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학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은 동원그룹·한국투자금융지주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사재 출연에서 비롯됐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누적 603억 원을 KAIST에 기부해왔다. 대학원 건립 부지는 성남시가 무상 임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KAIST 김재철AI대학원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속에서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김재철 명예회장은 아무도 AI에 주목하지 않았던 시기부터 이 분야 인재육성을 강조했고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판교 연구동 착공을 통해 R&D 예산 복원과 연구 생태계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추사를 통해 "푸른 바다에서 사업을 일으킨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라며, "AI대학원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 AI 인재양성의 산실이자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